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경우 전면 취소

축구협회, 8~9월 고등부 전국대회 운영 방안 마련
월별 대회 절반 이상 열려야 팀의 성적 인정돼

대한축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른 8~9월 고등부 전국대회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협회는 지난달 31일 "8~9월 고등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대회 취소 기준 및 취소에 따른 성적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우선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른 대회 취소를 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정상 개최한다. 2단계에선 대회를 일시 정지하고 '협회-의무 비상자문위원회-주최 및 주관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코로나19 관련 협의체가 대회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3단계가 되면 대회를 전면 취소한다. 코로나19 의심자 및 확진자가 대회 개최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선수단 및 대회운영인력 중 발생하면 개최를 취소한다. 이후 지자체와 협조해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밀접 접촉자를 구별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또 코로나19 의심자가 선수단 및 대회 운영인력 중에서 발생하면 해당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회를 일시 정지한다. 선수단 및 대회 운영인력이 아닌 대회 개최

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회 진행이 일시 정지된다. 이후 지자체를 통해 확진자와 선수단 및 대회 운영인력의 동선이 겹치는지를 파악해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 대회를 속개한다. 만약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선수단 및 대회 운영인력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이 되면 대회를 취소한다. 협회는 또 참가팀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대회 취소시 팀 성적 처리 기준을 정했다. 8월과 9월 예정된 전국대회는 각각 6개와 7개로 월별로 절반이 넘는 대회가 열려야 해당 월 성적이 인정된다. 8월 6개 대회 중 3개 대회가 취소되면 8월 대회 성적은 모두 취소되는 식이다. 또 8월과 9월 전국대회 중 성적이 취소되는 달이 생길 경우, 나머지 한 달의 경기가 모두 열려야 해당 월의 팀 성적이 인정된다. 8월 대회가 3개 이상이 취소돼 8월 성적이 모두 취소되면, 9월 대회는 7개 모두 정상 개최돼야 9월 대회 참가팀의 팀 실적 증명서가 발급된다. 한편, 대회 취소로 성적을 발급받지 못한 참가팀은 고등리그 실적 증명서를 활용해야 한다고 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전국대회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학에 발송할 계획이다. 흥명보 협회 전무이사는 "협회는 코로나19가 확산돼 대회를 치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교수들로 구성된 의무 비상자문위

원회를 구성했다"며 "비상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사 결정을 위한 의학적 대처 및 상황별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것이다. 또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협조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대회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스포츠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양동영 동아오츠카 대표이사(왼쪽)와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상암동 한국e스포츠협회 대회 의실에서 '한국 e스포츠 시장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아오츠카 제공)

도체육회, 전보인사 단행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산)가 8월 1일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부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업무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체육회는 기존 1차 2본부 7과에서 1차 2본부 1실 6과로 조직개편을 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일하는 체육회,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회로 우뚝 서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전보인사에 따른 신속한 업무 인계인수를 통해 업무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보 인사는 다음과 같다. **◇대의협력실** ▲실장 이재인 ▲주무 회승재 ▲지도자 김경아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김승민 -총무회계과 ▲과장 양재운 ▲팀장 유준석 ▲대리 김지현 ▲주무 박진연 -마케팅기획과 ▲과장 김종하 ▲팀장 박철민 ▲대리 김민선 ▲주무 신동석 ▲지도자 박선용 **◇체육진흥본부** ▲본부장 이동희 -전문체육과 ▲과장 김완 ▲팀장 민봉식 ▲주무 김병관 ▲주무 김찬우 ▲AT지도자 박경미·최예원 -영재복지과 ▲과장 오두석 ▲팀장 최병우 ▲주무 임소영 ▲지도자 이준희·오병용 -여가스포츠과 ▲과장 김춘상 ▲팀장 김미려 ▲주무 노후영 ▲AT지도자 허요한 ▲코디네이터 박영진 -종목지원과 ▲과장 장인석 ▲팀장 김희수 ▲주무 양운관 ▲주무 송재인 ▲AT지도자 김우람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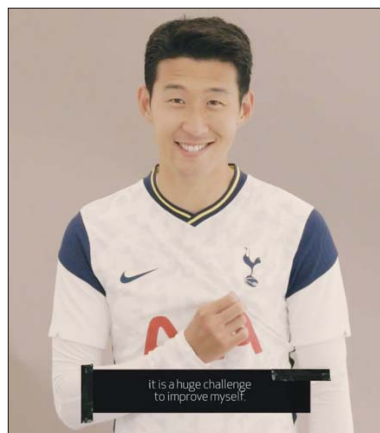
전북장애인체육회 워크숍

전북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31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장애인 종목별 경기단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종목별 훈련 시행사항 점검 및 전국장애인체전을 비롯한 체육행사 취소에 따른 방안 마련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의 대회 취소에 따른 선수들의 불안감 해소와 경기력 유지를 위한 훈련 및 선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체육계(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경기단체와 선수간 상호존중의 의미를 강조하는 시간도 가졌다. 노경일 사무처장은 "전북장애인체육회와 경기단체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준 종목별 경기단체에 감사 드린다"며, "코로나19 예방활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선수들의 훈련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축구는 즐거움" ... 손흥민, 구단 홈페이지에 한국어 인사

토트넘 2020~21시즌 새 유니폼 공개와 맞물려... 41초짜리로 영어 자막 사용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인사를 전했다. 토트넘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0~2021시즌 새 유니폼 공개와 맞물려 손흥민의 인사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했다. 새 유니폼을 착용한 손흥민은 "내 이름은 손흥민, 등번호는 7번, 미드필더 겸 공격수를 맡고 있다"며 "대한민국(출신으로) 8~9살에 축구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축구는 하는 사람들, 어린 선수들이 축구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항상 얘기했지만 많은 부담감보다는 자신의 톨런트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노력과 즐거움으로 축구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는 큰 챌린지다. 앞으로도 저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챌린지일 것이다"며 "축구는 즐거움이다.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승리했을 때, 나누는 기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1골 10도움으로 데뷔 후 처음으로 10-10을 달성했고, 단일 시즌 정규리그 최다 공격포인트(21개)를 기록했다. 18골 12도움으로 시즌 역시 최다 공격포인트(30개) 기록을 올렸다. 토트넘은 전날 나이키가 제작한 차기 시즌 홈과 원정 유니폼을 공개하면서도 손흥민을 모델로 내세웠다. 새로운 홈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해리 케인, 풀키퍼 위고 요리스 등과 함께 대표 모델로 등장했다. 특히 새 유니폼을 소개하는 50초짜리 영상에서 선수 중 가장 먼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환한 미소가 돋보였다. 손흥민은 최근 귀국해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이다. /뉴시스

쁨과 감격"이라고 마무리했다. 41초짜리 영상은 한국어로 제작됐다. 영어 자막을 사용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1골 10도움으로 데뷔 후 처음으로 10-10을 달성했고, 단일 시즌 정규리그 최다 공격포인트(21개)를 기록했다. 18골 12도움으로 시즌 역시 최다 공격포인트(30개) 기록을 올렸다. 토트넘은 전날 나이키가 제작한 차기 시즌 홈과 원정 유니폼을 공개하면서도 손흥민을 모델로 내세웠다. 새로운 홈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해리 케인, 풀키퍼 위고 요리스 등과 함께 대표 모델로 등장했다. 특히 새 유니폼을 소개하는 50초짜리 영상에서 선수 중 가장 먼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환한 미소가 돋보였다. 손흥민은 최근 귀국해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이다. /뉴시스

이승우, 벨기에 프로리그

연습경기 2경기 연속골

벨기에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신트트라위던)가 연습경기에서 2경기 연속으로 골맛을 보며 산뜻한 비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승우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벨기에 신트트라위던의 홈 벨 스타덴에서 열린 바슬란트-베베런과의 비공개 연습경기에서 골을 기록, 신트트라위던의 4-1 승리에 일조했다. 지난달 28일 퀴터베레험과의 연습경기에서 이어 2경기 연속 골이다. 이승우는 3-1로 앞선 후반 30분 팀의 네 번째 골을 터뜨렸다. 이승우는 지난해 8월 이탈리아 헬라스 베로나를 떠나 신트트라위던으로 이적했으나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했다. 이적 후, 약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데뷔전을 치렀고, 이를 포함해 4경기 출전이 전부였다. 그러나 시즌 종료 후 호주 출신 케빈 무스카트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으면서 서서히 입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